

## 社會의 病的 現象 (十二)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 民族의 固有性質이 社會生活을 形成 (續)

猶太의 意와 希臘의 理 卽 智에 對하여 우리 東亞에서는 情이 社會生活의 主要한 要素가 되얏습니다. 우리 東亞民族은(우리 人種과 相異한 印度族까지라도) 그 性質이 感情의임으로 宗教生活이 發達되고, 就中에도 印度의 純情의 宗教生活은 全人類의 그것의 模範이 되얏습니다. 我와 神과 相應相和하여 我와 非我間의 區別이 忘却되는 精神이 恍惚한 그 瞬間의 調和的 感情을 主要視하며 總意智的 活動을 意識的으로 禁하얏습니다. 中國民族도 此와 相等히 宇宙의 自然制度를 崇拜함으로 陰陽이 相和하여 天地가 生하고 天地가 相和하여 萬物이 生한다는 慈愛的 宇宙觀에 依하여 總社會制度를 形成하얏습니다. 家族은 孝道와 慈愛로 調和되며 國家의 君主는 人民을 嬰兒와 갓치 率道하고, 人民은 君主를 天의 子와갓치 忠誠으로 敬畏하여 治國平天下가 된다 하얏습니다.

### 東亞民族의 社會生活上 內的 衝突

그러면 모든 人類의 社會制度는 一定한 民族의 固有한 性質에 依하여 形成된다 하겡습니다. 그러나 한번 社會生活이 形成되면 그 民族의 性質은 社會制度 그것이 形成한다 할 것임니다. 如斯한 後에야 그 民族의 性質과 그 社會制度가 適合하고 그 生活이 幸福스러우며, 또 그 發展도 自然的이며 健康하다 하겡습니다. 然則 我東亞民族이 五千年 以來로 習慣된 換言하면 우리 東亞民族을 養育한 儒家의 社會制度는 우리의 骨肉的 基礎인데 此를 一朝에 舊衣와 갓치 脫棄함이 容易하겡스며, 또 그것을 免한 後에 我와 性質이 相異한 民族이 그 固有한 性質에 依하여 形成한 社會生活을 採用한다고 우리의 生活이 幸福스러우며 우리의 發展이 自然的이 되겡는가 하는 大問題가 生합니다. 이 問題를 簡約히 말하면 我東亞의 現時 社會生活은 우리의 固有

한 性質에서 內發된 것이 아니요, 外界 事情의 必要를 因하여 卽 歐洲의 征服을 因하여 우리에게 如斯히 生活하라고 強制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生活이 幸福스럽고 發展이 自然的이 되려면 우리의 固有한 社會生活을 發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文明民族인 生存을 維持하려면 現代 歐洲의 社會制度를 採用치 안이치 못하겠습니까. 그럼으로 余는 現代 東亞는 如斯한 內的 衝突을 經驗하는 病中에 있다고 信합니다. 이 問題는 眞實노 重大한 問題가 아님니가.

### 疑問인 日本 二字

或은 말하되 이는 疑問이 안이다. 『日本』이란 二字가 五十年 間에 明白한 答을 與하얏다 합니다. 그러나 日本은 人類 社會發展 上의 一大 變則으로 世界가 注目합니다. 日本國民은 本來부터 倣倣性이 銳敏합니다. 그러나 倣倣에는 二種이 有합니다. 其一은 他를 倣倣하여 自己 性質에 適合하게 物을 變化함이니, 德國서 耶蘇敎를 德化하고 中國서 佛敎를 中國化함과 如합니다. 如斯한 後에야 倣倣物이 永久한 所有로 存續될 것입니다. 其二是 倣倣物을 變更 업시 原狀대로 採用함이니, 我國民이 中國文化를 日本國民이 歐洲文化를 採用함과 如합니다. 如斯한 境遇에는 倣倣物을 變化치 안코 自己의 性質을 變更코자 하는 傾向이 有합니다. 如斯한 倣倣는 發展性이 업는 倣倣라 稱할 수 잇스며, 上述한 바 臺灣旅館의 例와 如한 것은 自國의 氣候까지라도 外國 氣候를 模倣하려는 滑稽로 解釋치 아니할 수 업습니다. 日本 쯤 아니라 우리 東亞民族의 只今까지 極力 輸入하려는 社會制度는 모다 歐洲에서는 腐敗되야 엇지 할 수 업는 資本主義의 社會制度입니다. 모든 傳來의 社會的 關係를 絶去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餘存식힌 結帶는 오즉 利益과 無情한 『맛돈』(直錢)쯤이다』하고, 『칼, 막쓰』는 그 共產黨宣言에서 現代 資本主義의 社會制度를 批難하얏습니다. 『宗教的 狂言, 武士의 熱誠, 庸夫 悲哀의 神聖한 의지잔을 쌀々한 氷海 中에 던져바렸다. 사람의 地位의 高下를 交換價値의 多少로써 定하얏고 無數한 成文法上, 習慣上의 自由를 代함에 忌憚업는 營業自由로써 하얏다. 一言以蔽之하면 宗教的 迷想과 政治的 迷想의 假面을 쓴 掠奪方法을 代함에 開放된 廉恥 업는 直接掠奪方法으로써 하얏다.』 하얏습니다. 歐羅巴에는 이러한 自覺이 그 意識 內에 漸次로 明白하게 되야 有産階級과 社會 勞動階級이 社會改造라는 곳에서 서로 逢着하게 되얏습니다.

社會主義의 勞力이 前無하게 勃興하야 政治經濟 쯤 안이라, 國體 乃至 人生觀에까지 그 影響이 及하야 一勢力으로부터 一權威가 되야감니다. 그런데 社會主義는 歐洲人의 社會生活上 古代부터 萌芽와 갓치 存在하다가 近世 資

本主義의 社會制度가 採用된 社會에서 必然히 生長하고 發展되야가는 將來 社會制度의 理想입니다. 그런즉 此亦 一定한 社會生活로 多年間 經驗에 經驗을 加하여 그 缺點을 眞正히 感得하고 現存한 社會方法을 變更치 안이치 못갓다는 民族의 內發的 要求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倣倣性이 銳敏한 日本國民이라 할지라도, 現存하는 國體的 信條를 有하는 以上 社會主義的 思潮에 能히 反應할는지 이는 一大疑問이갓습니다. 社會主義 그것은 姑舍하고 라도 現時의 資本主義的 産業國인 日本 그것이 社會發展 上의 一大疑問입니다. 日本이 歐美의 制度를 採用한지 不過 半世紀라 그 將來는 只今 卒然히 斷定키 不能한즉 『日本』이라는 二字의 疑問으로써 更히 他疑問을 答하기는 到底히 不能합니다. 그런즉 日本國民이 五十年間에 其社會의 基礎를 一變하얏다고 그 舊社會를 舊衣와 싸치 容易하게 脫棄하얏다고 모든 『舶來物』은 新物이오 完全無缺하다 하여, 歐美制度를 標準함은 決코 我東亞 問題의 解決을 期하는 道理가 아닙니다. 日本이 舊衣를 脫棄하고 髮毛를 黃染하고 面鏡을 對하면 그 肉體는 勿論 眞骨髓까지 『黃色』일 것입니다. 그 『黃色』과 『白衣』는 水와 油의 關係를 到底히 免치 못할 것입니다. 眞正한 黃白의 衝突은 日本國民의 心中에 無意識으로 實現될 새가 만습니다. 그 性格은 東亞오 그 周圍 事情은 歐美입니다. 周圍 事情은 一時的으로 變更할 수 잇스나 그 固有한 性格은 幾百萬의 木材應太郎氏가 有할지라도 一朝一夕에 變更치 못할 것입니다. 本來부터 順應性이 銳敏한 日本國民인즉 或 幾世紀 後에는 그 內外生活이 서로 調和될지도 아지 못하거니와, 그 幾百年 間의 苦痛은 姑舍하고라도 其間 爆發的 病狀을 避치 못할 것은 夏目漱石氏가 豫期하는 바입니다.